

우리나라 고분자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뒷받침하는 한국고분자학회



존경하는 한국고분자학회 회원 여러분!

2009년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모로 학문과 덕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제26대 학회장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고분자학회는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춘·추계 학술대회의 발표 논문 수와 회원 및 예산 규모를 볼 때 그 발전과 성장은 가히 눈부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학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신 회원님의 노력과 훌륭한 연구 성과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Macromolecular Research”와 “폴리머”의 science impact factor가 각각 1.77 및 0.38에 달하였으며 2009년부터는 “Macromolecular Research”가 매월 출간되어 한국고분자학회는 고분자 과학 기술의 발전과 상호 정보 교류에 더욱 더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산업은 전대미문의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원 고갈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며 유럽 연합을 중심으로 한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역 장벽과 엄청난 시장과 인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급성장으로 인하여, 극히 어려운 환경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고분자학회는 학문적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고분자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뒷받침하는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계 회원님의 학회 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산학연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학회가 구심점 역할을 하여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중앙회 및 한국플라스틱용기포장협회 등 플라스틱 산업 관련 협회와의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플라스틱 기술 혁신 세미나를 비롯한 우리 학회의 산학연 재교육 프로그램을 산업계의 인력 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내실있게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애로 사항을 가진 중소기업과 기술 자문을 할 수 있는 회원님을 학회가 연결해주는 교량 역할을 하여 실질적인 산학연 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국내외 학자들과 국내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 연구 인력이 보다 자유롭게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상호 교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2009년도 추계 학술 대회에서는 “정밀제어 중합기술”에 관한 international presentation session을 두고자 하며 이 시도가 추후 international presentation session의 확장을 위한 바탕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session을 설정하여 태양광뿐만 아니라 연료전지 및 이미 가격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풍력 발전과 조력 발전 기술에 관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개발 현황과 전망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저는 한국화학연구원의 최길영 수석부회장님과 제일모직 정규하 부회장님, 포항공대 박찬언부회장님, 경희대 송기국 부회장님, 한남대 이광섭 부회장님, 잉크테크 정광춘 부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 학회 운영을 총괄할 조길원 전무이사님을 비롯한 여러 운영이사님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계획된 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충고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회 초대 산업계 회장으로서 고분자 토론회를 고분자 포럼으로 개편하여 더욱 활성화시키고 산학연 협력의 전기를 마련하시는 등 한국고분자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크게 공헌하신 전임 이상선 회장님과 장지영 전무님 그리고 학회를 위하여 헌신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운영이사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학회 회원 여러분의 연구와 업무에 더 훌륭한 결실이 맺어지기를 바라오며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09년 1월 1일

신임회장 윤진산